

전북교육청, 학교방역 인력 지원

자원봉사자 2508명 위촉, 발열 체크 등 방역활동... 교원 업무 경감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방역활동 지원에 나섰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 2508명을 위촉,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사 운영의 조기 정상화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함이다.

지원 인력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우선 위촉하며, 퇴직 교원·학부모 등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위촉 기간은 2개월 인원으로 1일 4~5시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방역용품 관리·보건실 업무 지원 등 학생보호 방역활동 지원과 등교교시 학생 간 일거리 유지·급식소 이용 시 질서 유지·쉬는 시간 복도 및 교실내 밀집 접촉 금지 등 생활지도 지원을 하게 된다.

다. 또 필요한 경우 저학년 수업환경 조성, 수업준비물 지원 등 학습 지원에도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수업 이후 학교가 교육활동과 방역활동, 학부문의 각종 행정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학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와 한국동서발전(주)은 전북지역 인재육성과 미래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완판본 맥 잇는다

전통판각강좌 수강생 모집

『완판본 맥(脈) 이야기』 전통 판각강좌 초급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주시에서 후원하고 대경문화회관이 주관하는 전통 판각 강좌는 6월 17일 개강을 시작으로 9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완판본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주간반(오후2~5시), 야간반(저녁 7~10시)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반별 수강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한다.

전통 판각 강좌는 전통 판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조각도 제작, 음각기법, 음각글자, 양각기법, 양각글자, 워크숍, 목판의 작품 제작 등 15주간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전주의 판각(板刻) 문화 전승을 위해 시작된 전통 판각 강좌는 『완판본 맥(脈) 이야기』라는 취지로 2013년에 개설됐다. 그동안 35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2017년 기획전시 '100년만에 핀 꽃 완판본 심정전', 2018년 한글날 기념 기획전시 '목판으로 만나는 뜻밖의 심정전', 2019년 기획전시 '호영남 기록문화로 마주보다' 등 완판본문화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용화도서관 등 회원 전시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전주 시민들이 전주의 판각 문화, 목판 인쇄 문화에 친근하게 다가서고, 완판본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231-2213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한국동서발전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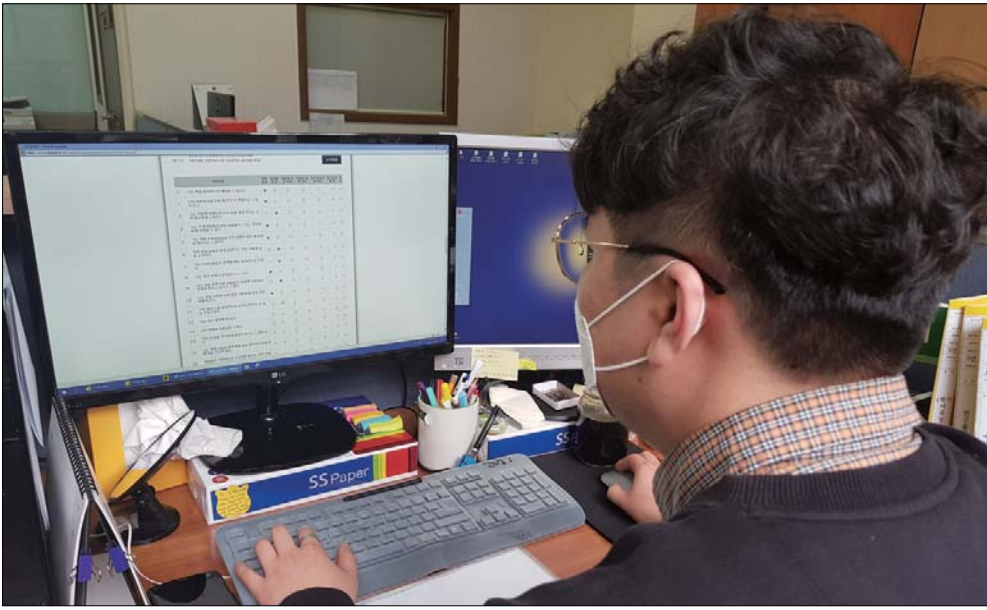
지역 인재육성·미래 재생에너지사업 발전 산학 협력

전주비전대학교(홍순직 총장)와 한국동서발전(주)은 전북지역 인재육성과 미래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본부에서 동서발전과 산학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4차산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양성 및 신기술 개발 방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5월 15일 양 기관이 맺은 산학협력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실무회의에, 전주비전대학교는 최승훈 산학협력담당 최형주 행정지원처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전기과 김창현 학과장, 전기과 임진택 교수 등 5명이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홍동표 재생에너지 처장을 비롯한 태양광사업부, 인재개발부 등 한국동서발전의 핵심 사업부서의 처장, 부장, 차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국내 에너지 정책을 고려한 교내 옥상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항공촬영드론 활용 발전설비 안전진단을 통한 건전성 분석, ▲수상태양광설비의 드론 활용 정밀 안전진단 표준 매뉴얼 개발 ▲동서발전 인력의 4차산업혁명 기술 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전북 지역 동서발전·협력사 선취업 후진화 계약학과 운영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마음건강 프로그램 시행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각 산업체에 근무 중인 각 지역 학부(과)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성인대학생이 학업에 대한 의욕이나 동기는 높으나 학업과 일을 병행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전 생애를 통해 교육이 이뤄짐을 고려해 새로운 대상을 발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

료학과 교수)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호원인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지속적인 상담 지원으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대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

플러스친구 맺기 이벤트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비대면 온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1:1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원대 취업지원실은 지난 3월부터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진로설정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영어사관학교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교내 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1:1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인사지원서 컨설팅 ▲NS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진로세미나 등 비교과 프로그램 외에도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 채용정보 공유 ▲1:1 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은 취업지원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영어사관학교 교과목의 비대면 수강 인증샷이 필요하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을 검색해 '친구맺기'를 한 뒤 '채팅하기'에 인증샷과 수강 중인 프로그램명을 남기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된다. /정은성 기자

'부모성장 달빛학교' 열린다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신청접수... 18일 김민섭 작가 초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일하는 부모를 위한 6월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성장 달빛학교"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과 후에 학부모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성장 달빛학교'는 오는 7월, 9~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운영된다. 7월에는 성교육, 9월 법률상식교육, 10월 청소년도박예방교육, 11월 생애주기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